



전 문 병 원 탐 방 **둔산속편안내과영상의학과의원**

대전 시민들의 속을 다스리는 병원

대전 도심의 한복판, 지하철 탄방역과 용문역 사이 서구 괴정동에 둔산속편안내과영상의학과가 자리하고 있다. 5명의 의사와 20명이 넘는 직원들, KMT 빌딩 4, 5층을 쓰는 커다란 규모만 가지고 대전을 대표하는 병원이란 명성을 얻은 것은 아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대전 시민들의 속을 다스리는 둔산속편안내과영상의학과의를 안을 들여다봤다. 글_장성란 기자 | 사진_김상민 기자

모든 것에서 ‘전문’을 추구하는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KMT 빌딩 4층에 들어서자마자 유리문 너머로 종합병원 대기실 부럽지 않은 널찍한 대기실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전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병원다운 첫인상이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환자들에게도 일일이 인사를 건네고 환자들이 남긴 쓰레기를 손수 챙기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친절함 미소가 가득하다. 쓰린 속을 부여잡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한 배려다. 하지만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와 의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부터다.

내과와 영상의학과가 함께하는 양손잡이 병원

일단 속편한내과라는 이름부터 낯설지 않다. 대전의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 있는 21개 내과 병원이 속편한내과라는 이름의 네트워크 체제 아래 내과 전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대전에만 두 개의 속편한내과 병원이 있다. 하나는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대전속편한내과다. 알고 보면 두 병원은 형제나 닮은 사이.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와 박찬욱 원장과 진영주 원장은 원래 대전속

편한내과에 근무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내시경 전문 병원으로 자리매김한 대전속편한내과에 있던 박 원장과 진 원장이 건강검진을 전문화할 필요를 깨닫게 되면서 지금의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가 새롭게 탄생하게 됐다.

박 원장과 진 원장이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황정민 원장과 손을 맞잡고 뜻을 함께 하면서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는 유능한 양손잡이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황 원장이 합세해 내시경검사와 CT, 초음파, 유방촬영술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검사 판독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게 된 것. 이를 바탕으로 내과 진료에 충실히 임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는 건 시간 문제였다.

특별한 MHI 건강검진센터

박찬욱 원장과 진영주 원장이 꿈꾸던 대로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검진병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병원과 다를 것 없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대전의 대표 병원으로서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이에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는 MHI 건강검진센터를 부설해 건강검진의 전문화를 꾀했다. 여기에는 내과 전문의로 심장에 조예가 깊은 정승현 원장의 합류도 큰 몫을 했다. 반응은 금방 나타났다.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는 MHI 건강검진센터에 개인 환자 뿐 아니라 기업 단위의 단체 환자가 줄을 잇고 있는 것. 덕분에 4명의 원장 모두가 2008년 연말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최고의 병원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는 환자들에게만 최고의 병원이 아니다.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4, 5층을 분주히 누비며 밀려드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병원에서도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약속해주고 있다.



오전 8시 30분에 일찍 문을 여는 대신 오후 4시 30분이면 서너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 6시까지 병원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다 병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체계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직원들 사이도 보통 친한 게 아니다. 이날 사진 촬영을 위해 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도 금방 여기저기서 이야기꽃과 웃음 소리가 피어났다.



취재를 마치고 나니 시계가 벌써 5시를 가리켰다. 취재진과 함께 병원 문을 나서는 환자와 직원들 중에 속이 편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는 건강검진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MHI 검진센터 체험기

마침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서 MHI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HSBC은행 대전지점의 김주열 씨가 병원에 와 있었다. 그에게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서 MHI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소감을 물었다.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는 직원들 사이에 한두 가지 씩 불만이 터져 나오곤 했는데 올해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는 불만을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주열 씨는 깨끗한 시설과 신속한 검사, 의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건강검진 서비스의 특징으로 꼽았다.



“진정한 전문가의 자신감으로 진료합니다”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를 탄생시킨 박찬욱 원장과 진영주 원장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죽마고우. 두 전문가의 찰떡같은 호흡이 지금의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 내과 진료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를 고집하고 싶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마음을 합쳤고 그 마음으로부터 대전 최고의 내과 병원이 탄생한 것이다. 한 치의 물러섬 없는 프로 정신으로 병원을 이끄는 박찬욱 원장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정 대신 실력을 믿고 찾는 병원

내과 병원이라고 하면 어디든 기본적으로 60대 이상의 노인 환자가 많은 것이 보통이다. 나이가 60세를 넘으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으로 내과를 제집 드나들 듯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는 조금 다르다. 60대 이상의 노인 환자들도 많은 반면, 다른 내과 병원에 비해 환자들의 평균 나이가 조금 더 젊다. “병원이 대전 시가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욱 원장이 겸손하게 말한다. 하지만 대전속편한내과방사선과가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에게 사랑받는 건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기보다 실력에 따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때문이 분명하다. 남성 직장인 환자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끊임없는 채찍질

조금만 꼼꼼한 환자라면 처음 발걸음을 했을 때부터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가 다른 병원과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내과 진료는 기본이고 내시경센터, MHI 건강검진센터를 비롯해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 변비, 과민성 장 증후군, 간 질환, 폐암, 유방암, 협심증을 치료하는 특수클리닉까지 의료 서비스 전 분야가 전문화돼 있다.

“무엇을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과 진료와 건강검진 서비스를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생각에서 2007년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문을 열었습니다.” 박찬욱 원장의 부드러운 목소리 속에 병원에 대한 강한 자부

심이 그대로 느껴진다. 내과 병원과 부설 건강검진 센터에 각각 속편한내과와 MHI 건강검진센터의 네트워크 체제를 도입한 것도 의료 서비스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병원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였다. “속편한내과와 MHI 건강검진센터의 네트워크 체제를 이용하면 정기적인 학술세미나와 직원 교육을 할 수 있고 다른 병원과 연계해 보다 복합적인 진료와 지속적 검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박찬욱 원장의 말 속에 전국 어느 병원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난다.

가족의 종합검진을 맡기는 병원

박찬욱 원장은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가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다고 자부한다. “모든 내시경검사는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가, 초음파 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 각 분야별 협력이 어려운 대학병원이 놓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기 때문에 전문성 면에서나 협동성 면에서나 오히려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가 더 낫다는 것. 얼마 전에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아들에게 신장 이식을 한 중년 남성 환자였다. 신장 이식 수술 이후 약 1년 간 대형 병원을 다니며 건강을 챙겼다. 대형병원에서는 전문분야 위주로 보는 시스템때문에 전체를 살피기 힘들 수 있다. 이 환자는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에 위 내시경 결과 위암 말기인 것으로 나타난 것. “대형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했는데도 각 분야별 검진이 소홀하게 이뤄져 병을 키운 셈이 돼버린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가 건강검진의 전문화를 주장한 것도 결국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박찬욱 원장은 기업체 검진을 통해 병원을 찾은 환자가 MHI 건강검진센터의 검진 서비스에 만족해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 종합검진을 받는 것을 볼 때 최고의 보람을 느낀다. “건강검진을 위해 의례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주치의로 인연을 맺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는 박찬욱 원장의 얼굴에 진정한 전문가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 기본 좋게 걸려 있었다.

건강검진센터 의사의 수고는 환자의 편안함



MHI 종합검진센터가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속편한내과의 네트워크 체제와 마찬가지로 MHI 종합검진센터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체제 아래 '맞춤형 검진' 과 '원스톱 진료 서비스' 를 추구하는 종합검진 전문 브랜드다. 우리 병원의 MHI 종합검진센터에서는 기본 건강검진 외에 기본형, 정밀형, 프리미엄형, 맞춤형, 각종 전문 검진 등 여러 유형의 종합검진 서비스를 마련해 검진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2007년 개설 이후 MHI 종합검진센터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

2007년 우리 병원의 MHI 종합검진센터를 이용한 검진자 수가 700~800명 선이었던 데 비해 2008년에는 종합검진 이용자 수가 1,800~2,000명으로 늘었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우리 병원 MHI 종합검진센터의 특징 중 하나가 개인 검진 외에도 기

업체 검진을 많이 한다는 점이다. 2007년에 MHI 종합검진센터를 이용한 회사들을 통해 대전의 기업에 입소문이 난 게 주효했던 것 같다.

건강검진 결과를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통보한다고 들었다.

다른 검진센터에서는 대부분 검진 결과를 의사가 직접 보지 않은 채 검진자에게 바로 보낸다. 검진자가 직접 병원을 찾지 않는 이상 의사에게 결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기 어렵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병원에서는 검진 당일 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오면 추후 의사가 직접 검진자에게 전화해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나 장에 용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진 당일 절제술을 받고 퇴원까지 할 수 있다.

진료 보기에다 바쁠 텐데 검진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려면 힘 들지 않나?

외래 환자를 보는 틈틈이 전화를 걸어야 하니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고 검진자들 사이에 호응이 워낙 좋아 쉽게 그만둘 수 없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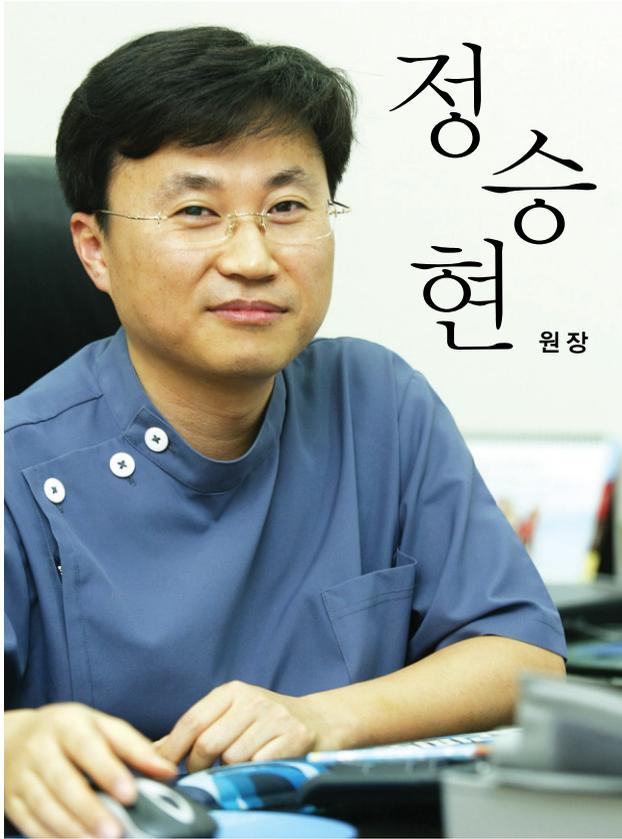
워낙 많은 의학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이다 보니 병원에 오기 전에 여기저기서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자신이 받을 검사 종류를 미리 다 정해놓고 오는 검진자들이 더러 있다. 건강검진은 검진자의 건강 상태, 나이, 검진 시기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적절한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사나 검진 코디네이터와 같은 전문 인력과 상담을 통해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건강검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혹 40세 남성 검진자의 폐 CT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다음에는 괜찮으려니 하고 건강검진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다. 건강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지 않으면 병을 놓칠 수 있다.

내시경센터

내시경검사의 승부처는 의료진의 실력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내시경검사 관련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기본적으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캡슐 내시경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장비는 모두 갖추고 있다. 최신식인 올림푸스 260 모델 내시경 장비 세트를 사용한다. 비단 내시경센터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가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있다. 영상의학과에서도 필립스 칼라 초음파 기계와 시멘스 MD-CT 등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내시경 기계의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나?

소독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환자의 몸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장비인 만큼 청결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내시경 전용세척기와 부속장비 전용 소독

기를 갖추고 내시경검사가 끝날 때마다 철저히 소독하고 있다. 내시경 전용 소독제도 대학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코테린 소독액을 사용한다.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 내시경검사가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소화기 내시경 전문가가 모든 내시경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모두 위 내시경검사 2만 명 이상, 대장 내시경검사 1만 명 이상 검사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이다. 또 위 내시경검사와 대장항문 내시경검사의 경우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면(무통) 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시경검사 중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중에 감시 장치를 통해 환자의 혈중 산소포화도와 심전도를 관찰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검사 당일 나온 결과를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용종절제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날 바로 수술하고 퇴원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갖추고 있다.

내시경검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을 고를 때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어떤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의료진의 실력이다. 내시경검사를 아무리 여러 번 해도 이상 증세를 지나쳐버리면 전부 헛수고가 돼 버린다. 따라서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진이 얼마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지, 합병증이나 출혈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내시경검사를 할 때 유의 사항이 있다면?

공복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 전날 저녁부터는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 이때 밥만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빵을 먹고 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 검사 3일 전부터는 씨 있는 과일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돌연사 제대로 알기 돌연사,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병원을 찾는 목적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데만 있지 않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돌연사도 예방할 수 있을까?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원의 정승현 원장은 그렇다고 답한다. 그가 전하는 돌연사 예방법을 소개한다.

자료제공 _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원 정승현 원장

돌연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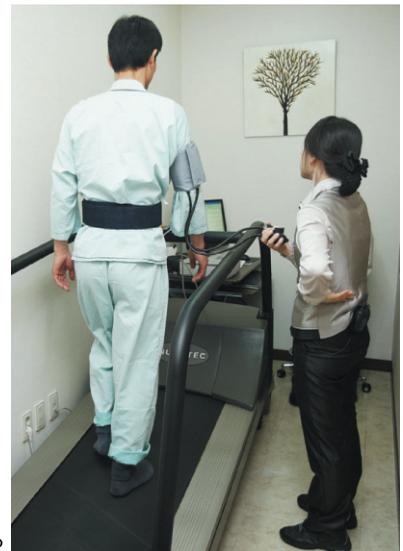
몇 년 전, 개그맨 김형곤 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김형곤 씨의 사인은 다름 아닌 돌연사. 굳이 김형곤 씨의 사망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요즘 건강한 40~50대 남성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를 주위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증상이 발생한 후 1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를 돌연사라고 한다.

돌연사의 원인

대부분의 돌연사는 심장병이 원인이다. 그 중에서도 80~90%는 관상동맥 질환이 문제가 된 경우다. 관상동맥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관상동맥이 혈전이나 혈관 수축으로 갑자기 심하게 좁아지면 심장으로 흐르던 피가 끊겨 심장 근육이 괴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심근경색증이다. 관상동맥 질환은 주로 교감 신경이 흥분할 때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운 겨울, 아침에 일어나 바로 운동을 한다거나 심한 운동, 지나친 성행위를 할 경우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킨다. 이에 혈소판이 자극을 받아 혈전을 만들어내면 혈압과 맥박이 크게 상승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같은 원리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장동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 외에도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확장성 심근증,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비후성 심근증 등이 돌연사를 불러오기도 한다. 대동맥 박리증과 같은 대동맥 질환, 심낭 질환도 돌연사의 원인으로 꼽는다.



돌연사 예측 및 예방법

그렇다면 갑자기 찾아오

는 죽음을 앓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가?

사전에 돌연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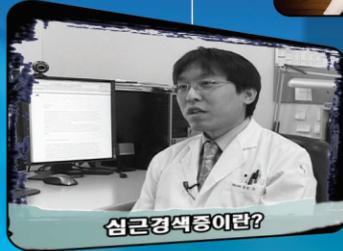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관상동맥이 좁아진 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하지만 검사를 하는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리해서 시술하지 않는 것이 좋다. 관상동맥 조영술보다는 간접적이지만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나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장 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란 일정한 운동을 하는 중에 심전도를 측정해 안정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심장병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돌연사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안정 상태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의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는 협심증과 부정맥 진단에 널리 이용되는 안전한 검사다.

다음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는 고주파를 이용해 심장 내부의 영상을 확인하는 검사. 심장의 크기, 구조, 움직임, 기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 심부전, 심근병증, 판막질환, 심낭질환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스트레스 줄이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와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면 일상생활에서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금연은 물론이고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 혈당 조절에 힘써야 한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하이닥” 의 특별한 제안
건강의 궁금증을 **전문의와 영상PD**가 풀어나갑니다.

하이닥 메디컬TV로 오세요~!



“장애인을 위한 mp3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1 기존의 문서 위주였던 질병백과를,
오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한,
보고듣는 건강백과



“복부만들기 - 하복부운동 편”

2 다양한 동작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
스트레칭과 요가 동작을 선보이는
스포츠/헬스 타임



“웰빙푸드 - 굴밥 편”

3 단순 레시피는 이제 그만 !!
건강한 식생활을 선도할
웰빙푸드레시피



“골형성 부전증의 진단과 유전상담”

4 최신 의학 소식을 전하는
메디컬뉴스